

손흥민의 토트넘, 기적의 챔스 결승행



“우리가 해냈어” 토트넘 홋스퍼의 루카스 모우라(왼쪽에서 두번째)가 9일 오전(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아약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종료 직전 결승득점을 올린 뒤 손흥민(맨 오른쪽)등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아약스에 3-2 역전

손흥민, 골대 강타...모우라 종료 직전 결승골 '해트트릭'
박지성 이후 8년만에 결승 그라운드 밟아
'빅이어' 놓고 내달 2일 스페인서 리버풀과 한판 대결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이후 두 번째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손흥민은 9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아약스(네덜란드)와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좌우 측면과 중앙을 활발히 오가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0-2로 끌려가다 후반 루카스 모우라가

혼자 세골을 몰아넣어 3-2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팀의 승리로 손흥민(토트넘)이 '레전드' 박지성의 뒤를 잇게 됐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박지성 이후 8년 만에 한국인 선수로는 두 번째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홈 1차전에서 0-1로 패한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3-3으로 맞섰으나 원정 다득점에 앞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뤘다.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일군 토트넘은 '안필드의



토트넘 손흥민(왼쪽)과 리버풀 반 디이크가 결승전 메인 포스터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스카이스포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기적'으로 바르셀로나(스페인)를 제친 리버풀(잉글랜드)과 다음달 2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안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단판으로 우승을 다툰다.
1차전 승리로 2차전에서는 비기지만 해도 결승에 오르는 아약스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다.
두산 타디치의 원발 슈팅이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선방에 막히고 나서 이어진 코너킥 때 라세 쇠네의 크로스를 마테이스 데리흐트가 골문 앞으로 파고들며 머리로 받아 넣었다.
일격을 당한 토트넘은 1분 뒤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 골라인 부근까지 공을 몬 뒤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탄식을 쏟아냈다.
전반 22분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원발슛은 수비벽에 걸렸다.
손흥민은 1분 뒤 델레알리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안 중앙으로 달려들며 결정적 득점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오른쪽 아웃사이드 슈

팅에 힘에 실리지 못해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게 잡혔다.
토트넘은 전반 35분 아약스의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얻어맞았다. 전세를 뒤집으려면 적어도 세골이 필요해진 토트넘은 후반 시작하며 빅터 완야마를 빼고 페르난도 요렌테를 투입했다.
이후 볼 점유율을 높여가다 후반 10분과 14분 터진 모우라의 연속골로 2-2 균형을 맞추며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했다.
모우라는 후반 10분 역습 상황에서 알리가 접어놓은 공을 골문 정면으로 달려들며 차 넣더니 4분 뒤에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을 가로채 원발 터닝슛으로 다시 한번 아약스 골문을 열었다.
후반 43분 안 베르통의 연이은 슈팅이 수비에 막힌 데 이어 손흥민의 슈팅도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 모우라가 결승골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결승 티켓은 극적으로 토트넘에 넘어갔다. /연합뉴스

KIA, 안방 6연전 호랑이 발톱 세운다

오늘부터 SK와 주말 3연전
KIA, SK 만나면 펄펄
지난해 11승 5패 우위
다음주중엔 KT...반등 기대



KIA 타이거즈가 10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K와이언스와의 주말 3연전을 통해 '호랑이 본능'을 깨운다.
KIA는 올 시즌 투-타의 불균형으로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잇단 패배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 KIA는 특히 원정 경기에서 약했다. 9일 경기 전까지 홈에서 9승 9패를 만든 KIA는 원정에서는 6승 17패에 그치면서 0.261의 저조한 승률을 기록했다.
KIA는 3월 29일 시즌 첫 원정이었다던 수원 KT전을 시작으로 9일 잠실 두산전까지 8번의 원정 시리즈를 치렀다.
그리고 원정길에서 7차례 상대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LG 원정에서는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2패를 기록했다.
거침없는 공세로 우위를 점한 시리즈는 지난달 12일부터 전개된 문학 SK전이 유일하다.



박찬호 김주찬

이상하게 문학에서 만나면 혈투를 벌이는 두 팀의 2019시즌은 첫 만남부터 강렬했다. 첫 대결에서 12회 연장 승부에도 승리팀이 나오지 않으면서 두 팀은 무승부를 나눠 가졌다.
그리고 13일 경기에서는 KIA가 9회초 2사에서 대타 한승택의 만루홈런으로 뒤집기쇼를 펼치면서 6-4승리를 장식했다.
한승택은 14일에도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트리면서 SK를 압박했고, 이창진은 프로 데뷔 홈런을

날리며 팀의 연승을 이었다.
KIA는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 9승 7패의 상대 전적을 기록했다. SK가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에도 11승 5패로 우위를 점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올 시즌에도 SK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문학에서는 KIA의 공세가 매섭다.
올 시즌 한승택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 폭발했고, 지난 2017년 7월 5일 문학원정에서는 6개의 홈런을 터트리면서 1이닝 12득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경기가 17-18 패배로 끝나기는 했지만 KIA는 이 경기를 통해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안방에서는 행운이 많이 따랐다. 특히 SK가 속 쓰러낸 수비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다.
지난 2014년 5월 1일에는 SK가 무려 8차례 수비에서 실수를 하면서 한 경기 최다 실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광주 첫 방문에서도 나쁜 기억이 남았다.
3월 12일 시범경기를 통해 광주에서 2019시즌 워밍업에 나선 SK는 이날 3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1-4로 졌다. 시범경기라고는 하지만 SK에는 고된 많은 패배가 됐다.
창원, 잠실로 이어지는 원정길에서 자존심을 구기고 온 KIA가 SK와의 좋은 기억을 살려 뜨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위 광주·2위 부산 '승점 전쟁'

광주 FC, 펠리페 복귀 천군만마...부산, 2점차 맹추격

K리그2 11라운드 12일 부산 원정

돌아온 펠리페가 광주FC의 1위 자리를 지킨다.
광주는 12일 오후 5시 구덕운동장에서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19 11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승점 6점 이상이 걸린 '승점 전쟁'이다.
올 시즌 광주의 질주는 거침없다. 최근 2연승과 함께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승점 22점(6승 4무)까지 끌어올렸다.
K리그의 유일한 무패팀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광주는 특히 펠리페가 빠진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달라진 전력을 과시했다.
앞선 전남전에서는 이한도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까지 이겨내면서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번 부산전은 승격을 준비하는 광주에 가장 중요한 경기다.
광주는 무패 행진 속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부산은 승점 2점 차 밖에서 광주를 추격하고 있다. 득점에서는 광주보다 10점이나 앞서 있다. 이번 경기에서 부산이 승리를 하면 1위 자리가 바뀐다.
반대로 광주가 승리를 하면 부산을 5점 차로 밀어내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펠리페의 복귀가 천군만마다.
펠리페는 지난 7라운드 안산전에서 퇴장을 당하고 두 경기를 쉬어야 했다.
펠리페는 올 시즌 9골을 넣으며 광주 공격의 해결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중볼 장악과 연계플레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승격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만큼 펠리페의 복귀가 반갑다.
부산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부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5-0으로 격파하는 등 리그 최다득점(26골)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부산의 맹공을 좌불우불과 조직력으로 맞선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측면의 스피드, 중원의 유기적 움직임, 리그 최소 실점(5실점)을 기록 중인 센터백 등 철저히 준비 중이다.
그동안 안정감을 보여준 이한도가 퇴장으로 빠지지만 김태운, 김진환, 홍준호 등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광주가 부산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10라운드 전남과의 경기를 통해 3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광주의 선제골을 넣은 이은범과 안정된 수비를 선보인 아슬마토프 그리고 골대를 굳게 지키는 윤영국이 10라운드 베스트 11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